

혁명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성스러운 위업

김 룡 진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은 수십여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로정을 위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며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을 묶어세워 불패의 혁명대오를 꾸려주시였기에 이 땅 위에는 인민의 락원이 일떠서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인민의 락원이 펼쳐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은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탁월한 혁명사상과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신것은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의 근본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며 혁명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는 위력한 추동력을 어떻게 마련하고 강화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해답을 주신것으로 된다.

혁명 그자체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성스러운 위업이라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자체가 인민에 대한 참다운 사랑과 믿음을 주는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위업이라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혁명대오의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속에서만 실현되어 혁명투쟁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전환된다는것이다.

혁명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성스러운 위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혁명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은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투쟁으로 된다.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 생명인 자주성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것만큼 큰 사랑과 믿음은 없다. 그것은 자주성에 사회적인간의 자주적 존엄과 가치가 있으며 자주성을 철저히 지키고 빛내어나갈 때에만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행사하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갈수 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무엇의 귀중함에 대하여 말할 때 생명에 비긴다. 사람의 생명가운데서도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담보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이 귀중한 생명이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사회정치적생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혁명은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믿음으로 되게 된다.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자주성을 잃은 사람은 온갖 무권리속에서 버림받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는 불우하고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이런 사람들은 비

록 육체적생명은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바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으로 되며 반대로 자주성을 침해당하고 유린당하는것은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으로 된다고 하는것이다. 이것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이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보여주며 여기에 바로 혁명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목적으로 하고 그로 일관된 성스러운 위업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원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들사이의 참다운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진정한 인간관계를 떠나 진행될수 없으며 그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참다운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인간관계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사이에만 맺어지며 사람들사이에 서로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것은 서로 굳게 단합되어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 즉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더 잘해나가자는데 주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모든것은 혁명이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지닌 사람들이 하는 숭고한 사업이며 인민들에게 참다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기 위한 투쟁으로서 혁명 그자체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성스러운 위업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성스러운 위업으로 되는것은 우선 혁명이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첫째가는 목적으로 내세우고 벌어지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사람에게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의미하며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그것은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지키고 빛내어나가는데 사회적인간의 자주적존엄과 가치, 진정한 권리와 생활의 참다운 행복과 보람, 크나큰 자량과 영예, 높은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면 무엇보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통하여 온갖 민족적 및 계급적지배와 예속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철저히 옹호실현하기 위한 혁명 그자체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성스러운 위업이라는것을 보여준다.

혁명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성스러운 위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혁명이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일뿐만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끊임없이 벌어지는데서도 표현된다.

혁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혁명에서 커다란 전진으로 되지만 그것으로써 혁명의 종국적목적이 달성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벌어지게 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물질경제생활, 문화생활분야에서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며 인민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투쟁이다.

이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인민에게 최상최대의 사랑과 믿음을 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성스러운 위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사랑과 믿음속에서만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여 혁명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수 있기때문이다.

단결로 시작되고 전진하고 완성되여나가는 혁명투쟁에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혁명투쟁의 성과와 그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되게 된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혁명투쟁에서 단결은 생명이라고 하는것이며 혁명위업이 개척되여 전진해오는 역사적행정에서 혁명대오의 단결에 관한 문제는 어느때나 중요한 문제로 강조되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었다.

혁명대오의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 혁명하는 사람들사이의 혁명적사랑과 믿음은 중요한 작용을 하며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는것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지난 시기에는 혁명대오의 단결을 주로 사람들의 사회계급적처지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실현하여야 한다는 사상들은 제기되었으나 혁명대오의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하나의 혁명사상과 함께 동지적사랑과 믿음을 사상정신적기초로 하여 이룩되여야 한다는 사상은 제기되지 못하였다.

오늘에는 혁명투쟁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회계급적처지의 공통성만을 가지고서는 그들모두를 혁명대오에 굳게 묶어세울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사회계급적처지는 다르다고 하여도 나라와 민족,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굳게 믿고 혁명대오에 묶어세워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혁명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이것은 사랑과 믿음의 원리가 혁명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인 혁명대오의 공고한 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며 결국 혁명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성스러운 위업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사람들사이의 사랑과 믿음을 가장 높은 단계에 올려세운 사랑과 믿음은 혁명하는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동지애와 믿음이다. 그러므로 혁명적동지애와 믿음은 혁명하는 사람들을 가장 공고하게 결합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며 따라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면 혁명대오안에 혁명적동지애와 믿음의 관계가 지배하여야 한다. 동지적사랑과 믿음은 혁명대오의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낳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힘을 낳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혁명적동지애가 사람들을 동지적으로 굳게 결합시키고 운명개척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것은 혁명적동지애가 동지를 자기처럼 절대적으로 믿고 동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진실하고 열렬하며 동지를 위한 헌신이 자기희생적인것으로, 가장 숭고한것으로 되기때문이다. 바로 이러한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동지적사랑과

믿음은 혁명투쟁에서 혁명대오를 결성하고 그 위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혁명이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혁명적동지애는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장 아름답고 열화같은 사랑으로서 그것은 혁명적단결의 최고형태이며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의 사상적기초이다.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을 기초로 하고 수령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 위대한 본보기가 마련된 혁명적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일심단결은 혁명투쟁에서 발휘되는 인민대중의 불패의 위력이고 백승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보검이다.

이것은 혁명대오안에 동지적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결국 혁명은 그자체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성스러운 위업이라는것을 립증하고 있다.

우리 혁명은 백두에서 땀을 올린 영광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나날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인민사랑과 가장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에 받들리어 불패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그 위력으로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우리 혁명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위대한 동지애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빛나는 력사이며 그 고귀한 전통은 오늘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기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 세찬 광풍이 몰아쳐도 우리의 정의의 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필승불패할것이며 우리 인민이 나아가는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실마리어 혁명, 사랑, 믿음